



사장 박영성

“자연미가 넘치고 조화로운  
생활휴식 공간과 경제적인  
소득이 연속되는 농원”

“영월군 지역의 소년 소녀 가장이나 불우가정의 중·고교 학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사회복지 단체인 (사)정다우리를 통해 봉사 활동을 하고 주변 학교나 지자체에 공원 조경수용를 매년 1천여 본씩 기증해 오고 있으며 조경수협회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협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왔을 분 아니라 무엇보다 불모지를 일궈 훌륭한 조경수 농장으로 키워온 공적으로 2007년 4월 정부 포상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 (주)갑자원 농장을 찾아서

김해웅 글·사진

태백산 기차가 충북 제천을 지나 강원도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역 대재벌의 그룹명이자 시멘트 상표인 쌍룡역. 많은 이들이 시멘트 공장 과 연관된 지명으로 알고 있지만 본래지명이 쌍룡리란다.

용이 승천 했다는 큰 동굴이 2개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멘트 공장으로 더 알려진 곳,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3km정도 떨어진 산골마을에 박영성 사장의(주)갑자원 영월 농장이 있다.

정확한 지명은 영월군 남면 토교리 산 74-1번지, 그러나 보통 영월 쌍룡 농장이라고 부른다.

박영성 사장이 조경 공사를 하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거주지는 경기도 포천시 그런데 멀리 이곳 영월에 조경수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간다. 당초 조경 회사에 딸린 농장인가? 아니면 기존 농장을 최근 구입한 것인가? 특별한 연고라도 있는 것인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다.

박영성 사장의 고향은 경기도 양주시 주내면 유양리. 현재 양주시청 신청사가 있는 곳이고 고등학교도 의정부 실업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고 대학도 건국대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였다.

어려서부터 넓은 농장을 가꾸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조경관련 회사에 입사하여 많은 경험을 쌓은 후 1989년도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경기조경 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갑 자원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본격적인 조경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 조경수 재배 농장을 확보하여야 했으므로 지인을 통해 충북 제천시에 있는 농지를 구입코자 계약하려 갔다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불발이 되고 대신 구입한 땅이 현 농장이란다.

당시 가격이 좀 싼 것 이외는 무엇하나 좋은 조건이 없는 토지를 구입하여 조경수 재배를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비협조였다 당시에도 토지 투기꾼들이 농지나 나대지를 구입한 후 조경수 몇 주 심어 놓고 경작하는 것으로 위장, 땅값 오르기만 기다렸던 것이 많아서 투기꾼으로 오해를 받은 것은 물론 가장 시급한 진입로가 마을을 지나야 하는데 토지주인들의 비협조로 큰 곤욕을 겪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중앙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서해안 평택 안중에서 동해안 강원 삼척까지의 국도 38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된 관계로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곳까지 3시간 이면 도착하지만 당시만 해도 거의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였다

이곳에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조경수를 재배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오해는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농장을 찾아가는 길옆 농가의 돌 담가에 작약꽃이 아주 소담스럽게 피어 시골 정취를 뽐낸다. 그것들이 모두 자기 농장에서 분양된 것들이라고 했다

꼬불꼬불 시멘트 포장된 비탈 길을 따라 올라가니 막다른 곳에 농장 있다. 농장에 서니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산골 집들과 농경지 그리고 흰 연기를 뿜는 커다란 시멘트 공장, 겹겹이 보이는 산, 산, 산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시원하고 상쾌함이 가슴을 확 트이게 한다.

본래 이 땅은 전 소유주가 1980년대 초 목장 붐을 타고 산지를 개간한 후 방치했던 땅으로 표토가 유실될 대로 유실되어 그야말로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지금도 토양은 경사10~20도의 자갈투성이



▲ 농장전경



▲ 등근주목



▲ 묘목생산

밭으로 도량물 하나 없는 메마른 땅이다.

그러나 농장 어디를 봐도 조경수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다. 어린 유목부터 큰 나무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치 수세가 왕성하다. 이것이 강원도의 힘인가, 아니면 나무는 역시 강원도 땅이라야 하는 가 그러나 답은 따로 있었다. 즉, 「나무를 자식 사랑하듯 키워라」잘먹이고 병들지 않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이것이 박사장의 조경수 재배 철학 이란다. 이렇게 지극 정성으로 가꾸니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곳 농장은 그야말로 실용적인 면을 최대한 추구하는 농장이라 하겠다. 수종별 종류별 또는 장·단기수별 짜임새 있는 배치와 한 치의 땅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농장임을 알 수 있다.

커다란 느티나무 단지 옆에 작은 주목 밭이 있는가 하면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섞여 있고 작업로 변에는 느티나무 해송, 단풍나무 등이 심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로 경사면에는 비비추를 심고 심지어 작업로 바다에 까지 맥문동을 심어서 활용하고 있다.

농장을 시작한지 20년이 가까이 되지만 특별히 아끼거나 자랑할 만한 수종은 없다고 하지만 약4만평의 농장에는 전부 10년생의 조경수로 구성되어 있다. 주수종은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계수나무, 팔배나무 등 활엽수와 해송·주목·전나무·잣나무 은청가문비 백송등 침엽수가 대종을 이루고 기타 잡다한 수종들이 소량씩 70여 종이 있다

판매는 주로 직영하는 (주)갑자원의 시공에 조달하고 나머지는 같은 조경업을 하는 지인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판로 걱정은 없다고 한다. 또한 조경수는 못 팔고 묵히면 그만큼 나무는 크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식재수종의 선택은 우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 수종을 분산 재배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무슨 수종이 좋으니 심으라고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경수의 유행만큼 예측 불허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나무는 자식 키우듯 정성으로 키워라」하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 수종이 좋아서 팔배나무 복자기 층층나무 화살나무 등을 많이 심고 있으며 양묘 생산은 하지 않고 타 농장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심고 있다.

박영성 사장은 본 영월농장 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도 약 18ha의 농장이 있어 도합 9만 평에 100여 수종의 조경수 약 250만본을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년2회 정기적으로 영농후계자 및 조경업 희망자들을 초대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재배 및 경영기술을 전수하고 영월군 지역의 소년 소녀가장이나 불우가정의 중·고교 학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를 계속 지원해왔다. 또한 사회복지 단체인 (사)정다우리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주변 학교나 지자체에 공원 조경수용을 매년 1천여 본씩 기



▲ 소나무



▲ 전지작업



▲ 주목



▲ 지피류

나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고향인 경기도 양주시, 이제까지 생활해 오던 의정부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와도 끈을 놓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 거주는 조경인 답게 자연 환경의 보고라는 광릉숲 주변 포천군 소흘읍 이곡리 부락에 하얀 목조 주택을 짓고 부인 장봉성씨와 형제 중 출가 하지 않은 둘째 아들과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 이 땅을 살 때 팔아넘긴 고향땅은 수도권 개발로 야단이지만 지난 18년동안 팍과 정성으로 이룩한 조경수가 자라는 이 농장을 보면 조금도 후회가 없으며 조경인으로 성공하였다는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단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조경수만 심고 판매하던 이 농장을 그야말로 자연미가 넘치고 조화로운 생활휴식 공간과 경제적인 소득이 연속되는 농원으로 가꾸어서 인근의 유명한 역사 유적지인 단종의 장릉과 그 유배지였던 청령포 그리고 아름다운 영월동강과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 한다.

작년 여름에 환갑이 지난 동창생들을 불러서 이곳 농장에서 묵고 영월 동강에 가서 래프팅을 하더니 다시금 학창시절로 돌아 간듯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한다.

앞으로 멋진 조경원으로 꾸며 나이를 잊고 동강 래프팅을 즐기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

증해 오고 있으며 조경수 협회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협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불모지를 일궈 훌륭한 조경수 농장으로 키워온 공적으로 2007년 4월 정부 포상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두 내외가 이곳 농장에서 살다시피 하였지만 지금은 지방 토박이 관리인 김정근(60세)씨 내외가 관리사에 기거하며 조경수 재배 관리는 물론 판매까지 맡아서 해주고 인부들 식사제공까지 해주어 얼마나 편하고 믿음직스러운지 모른다 한다.

박영성 사장은 한마디로 부지런함과 정성 어린 추진력으로 성공한 조경인 이라 할 수 있다

농장을 안내하는 짧은 시간에도 마침 전지 작업을 하던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농장에 오면 피곤도 잊고 힘이 절로 난단다. 지금도 이곳에 와서 작업을 하면 인부들 2-3배의 일을 해낸다고 자랑이다.

그래서인가 조경공사업인(주) 갑자원 사무실은 경기도 일산에 있고 이곳 영월과 멀리 경북 봉화에 조경수 농장이 떨어져 있는